

“국립공원과 지역 함께 발전하는 길 만들터”

영암군,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첫 정기회의 개최

16개 지방 참여...국립공원 상생·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국립공원을 품은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국회에 모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끄는 국립공원 정책을 논의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첫 정기회의가 열렸다.

협의회장인 우승희 영암군수가 회의를 주재해 공동 협력사업과 제도개선 등 앞으로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최기상·이건태 국회의원, 국립공원공단과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국립

공원을 품은 지방정부가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력기구다.

지난 2월 국회에서 1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으며, 서울 은평구·성북구, 강원 속초시, 충북 단양군, 전북 부안군·정읍시, 전남 광주통합특례시 영암군·담양군·화순군·장성군·강진군·구례군·신안군·북구·동구와 이번에 새로 가입한 완도군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부회장,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청장을 사무총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감사로 선임해 협의회 운영체제도 갖췄다.

회원 지방정부들은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영암군 등 국립공원을 품은 전국 16개 지방정부는 최근 국회에 모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끄는 국립공원 정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영암군청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고려한 공동사업을 찾고, 각 지역이 겪는 현안을 공유해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과 강, 섬과 바다 등 지역마다 다른 국립공원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립공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도 넓혀가기로 했다.

우승희 협의회장은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면서 그 곁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다”며 “잘 지키는 것과 잘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다. 지방정

부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제도개선에는 함께 목소리를 내 국립공원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 ‘생일도 둘레길’

10월 추천 관광지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완도군이 10월 추천 관광지로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 등 해안 경관이 어우러진 ‘생일도 둘레길’을 선정했다.

‘생일도 둘레길’ 바다와 숲, 마을이 어우러지는 코스로 서성항에서 시작해 해안도로를 따라 응솔 갯돌 해안, 금머리 갯길, 금곡 해수욕장, 금곡마을까지 총 10.6km이며,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생일도 둘레길은 바다와 숲을 곁에 두고 천천히 걸으면 절로 힐링이 되는 여행지다.

둘레길이 시작되는 서성항에는 ‘생일도’라는 이름답게 초대형 생일 케이크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특히 해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숲에는 계절마다 야생화의 향기가 퍼져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한편 생일도는 해발 483m의 백운산과 응솔리 갯돌밭이 장관을 이루는 섬으로 2016년도에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강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 총력

추진단 민·관 TF 실무회의

읍·면 등과 긴밀히 소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민관 TF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 예산, 지역경제, 행정, 농정 등 관계 부서와 강진읍을 비롯한 부읍·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행정적·재정적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 방안, 읍·면 단위의 주민 안 내 및 홍보 등 실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민관 TF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강진군청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관 인구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현장 중심의 세심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준비를 이어가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내 및 홍보 등 실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부서와 읍·면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지역경제 등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업을 구축하고 읍·면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주민소통과 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TF팀을 구성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진도, 발작물 가뭄 우려 지역 4차 현장점검

이달 중순까지 농업용수 공급 가능토록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진도군이 지난달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배추, 대파 등 발작물의 생육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등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주요 농업용수 시설을 방문해 저수율과 용수 공급 현황, 펌프장 가동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에는 이재각 진도군수를 비롯해 농업지원과장, 건설과장, 지산면장 등이 참석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진도군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부족했다. 9월 중순까지 강우가 거의 없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 평균 30mm의 비가 내려 배추 정식 이후 일시적으로 가뭄이 해소됐지만 10월 중순까지 강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진도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가뭄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읍면별 용량이 필요지역 수요조사, 용량이 조성 지원 예비비 편성, 거제담수호 등 주요 용수시설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가뭄으로 인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진도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00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60% 수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개소는 30% 내외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진도군은 벼 수확이 본격화되면서 논농사 용수 수요가 줄어들어 점을 활용해 한 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저수지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배추와 대파 등 발작물에 용수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현재까지 발작물 생육 상황을 엄중히 관찰하고 있다”며 “10월 중순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 수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초대석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차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례시장위원장

“전남광주 대진환 기회 경제 대도약 열어나갈 터”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윤진 루트머지(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감각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남구청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노래 흐르는 거리, 꽃으로 물든 강변 남도의 가을이 깊어진다

전남광주의 10월은



당일치기 영암여행 문화유산이 있는 호남 대표 명촌에서 머물다

문득여행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과 토대
민생 중심 행정...A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